





연관 홈페이지



[대입뉴스](#) |
 [대입정보 활용하기](#) |
 [연공 공리공리](#) |
 [선생님 질문](#) |
 [어디가 활용수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맛길 606(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Tel.02-6919-3855
 Copyright 2015. KCUE all rights reserved.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내, ‘국어 수학영역 성적은 이렇게 산출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내 자료 배포

- 안내 자료 3종(학습 방법 안내, 이렇게 준비하세요, Q&A 자료집)
- 요약 자료 ‘국어와 수학 영역 성적은 이렇게 산출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 이하 평가원)은 수험생 및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종의 안내 자료를 평가원 수능(www.suneung.re.kr) 홈페이지의 자료마당 ‘수험자료’에 탑재하였고, 4월 초에 책자 형태로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 올해 안내 자료에는 공통+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산출 방법과 영역별 학습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담았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와 수학 영역 성적은 이렇게 산출합니다.

- 1 국어, 수학 영역의 시험과목 구조
- 2 시험과목을 ‘공통과목 + 선택과목’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
- 3 성적을 영역별 ‘표준점수’(등급, 백분위 포함)로 제공합니다.
- 4 최종 표준점수 산출 방법
- 5 원점수가 동점이어도 최종 표준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6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

※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와 <Q&A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1. 국어, 수학 영역의 시험과목 구조

‘공통과목 + 선택과목’으로 구성됩니다.



2. 시험과목을 '공통과목 + 선택과목'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계열' 구분이 없어집니다.

국어와 수학에서 기본이 되는 학습 내용은 '공통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응시하고, 그 밖의 학습 내용은 '선택과목'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에는 진학하려는 대학의 학과나 전공에서 어떤 과목의 성적을 요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성적을 영역별 '표준점수'(등급, 백분위 포함)로 제공합니다.

모든 수험생을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어와 수학 영역별로 '표준점수'가 산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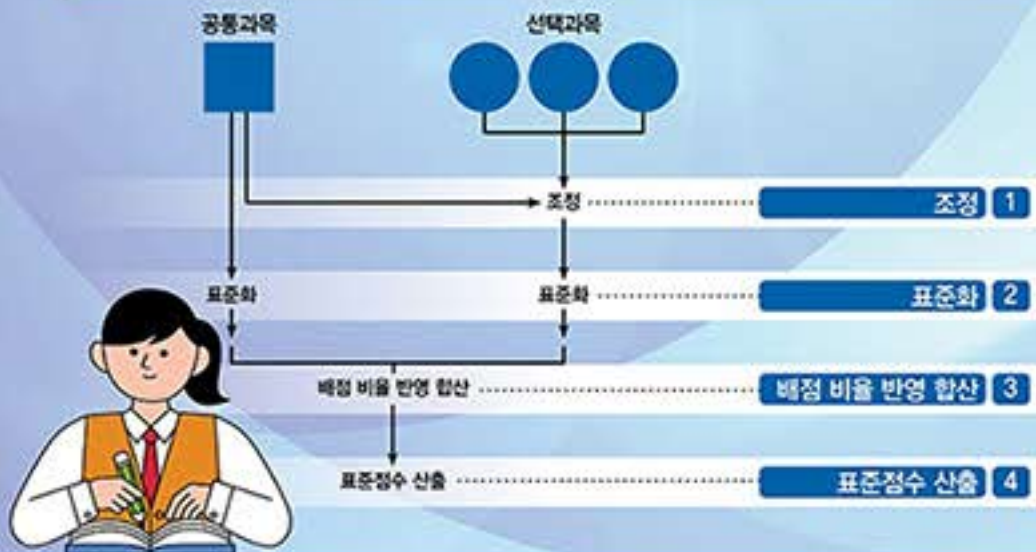
대입전형이 '원점수'로 운영된다면 어떤 '선택과목'에 응시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최종 표준점수 산출 방법

표준점수(등급)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는 '공통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 방법은 '공통+선택'의 구조를 채택했던 과거 수능에서도 적용해서, 대입전형에 무리 없이 활용되었습니다. 산출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5. 원점수가 동점이어도 최종 표준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의 공통과목 원점수가 같고 선택과목 원점수도 같을 때 선택과목이 다르면, 최종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별로 응시자 구성(공통과목에서의 성적 분포)이 다른 점을 최종 표준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수능홈페이지 자료마당에 있는 수능(Q&A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5. 원점수가 동점이어도 최종 표준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의 선택과목이 같고 원점수의 합 (공통과목 원점수+선택과목 원점수)이 동점인 경우에도 최종 표준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과목의 원점수가 높은 수험생의 최종 표준점수가 더 높게 산출됩니다. 공통과목이 선택과목보다 배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수능홈페이지 자료마당에 있는 수능(Q&A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6.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

영역의 최종 표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고, 그 요인들은 대부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에 어떤 수험생들이 응시할지, 과목별로 평균 난이도가 결국 어떻게 형성될지, '나'에 해당하는 난이도와 다른 수험생에 해당하는 난이도는 어떻게 다를지 등 영향 요인은 많기 때문입니다.



과목 선택을 놓고 유리과 불리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먼저 고려한 후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6.3.(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19.8.13.)」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4.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5.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6. 탐구 영역은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7.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다.
8.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9.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10. 또한 이번 6월 모의평가부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며, 이를 위한 시간은 15분이 부여된다. 이 시간 중 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다.
11. 이번 6월 모의평가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2021.3.16.)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축소한다.
12.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13. 이번 모의평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1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14. 접수 기간은 2021.4.5.(월)~4.15.(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5.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16.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17.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18.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19.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20.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1. 6. 30.(수)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21. 2021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제출서류 변경사항 안내

유의사항

1. 이 자료는 각 대학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음
2. 지원할 때,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주요 내용 :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제출서류 변경

1. 추천서 미제출

대학	전형	모집단위	서류내용	비고
가톨릭관동대	가톨릭지도자추천	의학과/간호학과	학생부/자소서	
가톨릭대	학교장추천	약학과	학생부/자소서	
가톨릭대	가톨릭지도자추천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공주교육대	교직적성인재	초등교육과	학생부	
공주교육대	지역인재선발	초등교육과	학생부	
공주교육대	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공주교육대	농어촌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	
공주교육대	기회균형선발	초등교육과	학생부	
공주교육대	장애인등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나사렛대	장애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장애인증명서 자기활동보고서
동국대(서울)	불교추천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기타	추천 공문
서울대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서울대	저소득가구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서울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서울대	농생명계열고교졸업예정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서울대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성신여대	자기주도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연세대(서울)	활동우수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연세대(서울)	국제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연세대(서울)	기회균형 I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연세대(서울)	기회균형 II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연세대(서울)	시스템반도체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연세대(서울)	연세한마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연세대(서울)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울산대	학생부종합	의예과	학생부/자소서	
울산대	지역인재	의예과	학생부/자소서	
장로회신학대	기독교대안학교출신자	신학과/기독교교육과	학생부/자소서	
장로회신학대	검정고시출신자	신학과/기독교교육과	자소서	
장로회신학대	드림(PUTS)인재	신학과/기독교교육과	학생부/자소서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중앙대	탐구형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중앙대	SW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중앙대	사회통합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중앙대	기회균등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중앙대	특성화고졸재직자	지식경영학부	학생부/자소서	
중앙대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약학부	학생부/자소서	
중앙대	장애인등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충남대	소프트웨어인재	컴퓨터융합학부	학생부/기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
충남대	영농창업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영농창업계획서
포항공과대	일반	단일계열	학생부/자소서	시행계획에 없음
포항공과대	고른기회농어촌	단일계열	학생부/자소서	시행계획에 없음
포항공과대	고른기회저소득층	단일계열	학생부/자소서	시행계획에 없음
한림대	학교생활우수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한림대	지역인재	의예과	학생부/자소서	
한림대	농어촌학생	의예과	학생부/자소서	

2. 자기소개서 미제출

대학	전형	모집단위	서류내용	비고
강원대	미래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강원대	소프트웨어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강원대	평생학습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강원대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강원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강원대	저소득층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건국대(글로벌)	Cogito자기추천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일반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국가보훈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사회배려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고졸재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학업계획서
경북대	영농창업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자소서	
경북대	SW특별전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특성화고졸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기초생활수급자등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장애인등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북대	특성화고졸재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학업계획서
경북대	모바일과학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일반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국가보훈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기초생활수급자등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사회통합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평생학습자	전 모집단위	기타	학업이수계획서
경상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장애인등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기초생활수급자등	전 모집단위	학생부	
경상대	재직자	전 모집단위	기타	학업이수계획서
경인교육대	교직적성	초등교육과	학생부	
경인교육대	학교장추천	초등교육과	학생부	
경인교육대	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경인교육대	저소득층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	
경인교육대	농어촌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	
경인교육대	장애인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	
경인교육대	서해5도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	
계명대	일반	전 모집단위	학생부	
계명대	지역	전 모집단위	학생부	
고려대(서울)	학업우수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	
고려대(서울)	계열적합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	
고려대(서울)	고른기회	전 모집단위	학생부	
고려대(서울)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추천확인서
공주교육대	교직적성인재	초등교육과	학생부	자기활동보고서
공주교육대	지역인재선발	초등교육과	학생부	자기활동보고서
공주교육대	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자기활동보고서

공주교육대	농어촌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	자기활동보고서
공주교육대	기회균형선발	초등교육과	학생부	자기활동보고서
공주교육대	장애인등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자기활동보고서
공주대	고른기회	전 모집단위	학생부	시행계획에 없음
공주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시행계획에 없음
공주대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시행계획에 없음
공주대	장애인등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시행계획에 없음
공주대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시행계획에 없음
광주교육대	교직적성우수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광주교육대	전라남도교육감추천	초등교육과	학생부	
광주교육대	광주인재	초등교육과	학생부	
광주교육대	전남인재	초등교육과	학생부	
광주교육대	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광주교육대	다문화가정	초등교육과	학생부	
광주교육대	장애인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광주교육대	농어촌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	
광주교육대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초등교육과	학생부	
군산대	새만금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군산대	다문화가정자녀	전 모집단위	학생부	
군산대	국가보훈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군산대	고른기회	전 모집단위	학생부	
금오공대	KIT인재Ⅰ	전 모집단위	학생부	
금오공대	KIT인재Ⅱ	전 모집단위	학생부	
금오공대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나사렛대	창의융합인재(일반)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나사렛대	창의융합인재(특별)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장애인증명서/ 부모설문지
나사렛대	장애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장애인증명서
단국대(죽전)	DKU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죽전)	SW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죽전)	고른기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죽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죽전)	창업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죽전)	취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죽전)	기회균형선발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죽전)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죽전)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죽전)	특성화고졸재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천안)	DKU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천안)	고른기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천안)	사회적배려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천안)	취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천안)	기회균형선발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천안)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단국대(천안)	특성화고졸재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대진대	원원대진	전 모집단위	학생부	
동국대(경주)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동국대(경주)	참사람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동국대(경주)	불교추천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명지대	명지인재면접	전 모집단위	학생부	
명지대	크리스천리더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목회자 확인서
부경대	학교생활우수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경대	나눔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경대	키움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경대	평생학습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경대	특성화고교등을졸업한재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산가톨릭대	자기추천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산대	학생부종합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산대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산대	사회적배려대상자 I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산대	사회적배려대상자 II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산대	저소득층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산대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부산대	특성화고졸재직자	원예생명과학과	학생부	
상명대(서울)	상명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상명대(서울)	고른기회	전 모집단위	학생부	
상명대(서울)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융합경영학과	학생부	
상명대(서울)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상명대(천안)	상명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상명대(천안)	고른기회	전 모집단위	학생부	
상명대(천안)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서강대	일반	전 모집단위	학생부	

서강대	고른기회	전 모집단위	학생부	
서강대	사회통합	전 모집단위	학생부	
서울신학대	H+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서울신학대	사회기여및배려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서울신학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서울신학대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서울신학대	기회균형선발	전 모집단위	학생부	
선문대	전문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순천향대	일반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순천향대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순천향대	고른기회	전 모집단위	학생부	
순천향대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전 모집단위	학생부	
순천향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순천향대	특성화고졸재직자	경영학과	학생부	
안양대	아리학생부종합	전 모집단위	학생부	
안양대	고른기회	전 모집단위	학생부	
영남대	잠재능력우수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영남대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우송대	종합 I	전 모집단위	학생부	
우송대	종합 II	전 모집단위	학생부	
우송대	소프트웨어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울산대	학생부종합	전 모집단위(일부 제외)	학생부	
울산대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일부 제외)	학생부	
전북대	큰사람	전 모집단위	학생부	
전북대	사회통합	전 모집단위	학생부	
전북대	국가보훈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전북대	만학도	생명자원융합학과(야)	학생부	
전북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전북대	기회균형선발	전 모집단위	학생부	
전북대	특성화고졸재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전북대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전북대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전주교육대	교직적성우수자	초등교육과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전주교육대	지역인재선발	초등교육과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전주교육대	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전주교육대	다문화가정자녀	초등교육과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전주교육대	농어촌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전주교육대	기회균형선발	초등교육과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전주교육대	장애인등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기타	시행계획에 없음
제주대	일반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진주교육대	21세기형교직적성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진주교육대	지역인재	초등교육과	학생부	
진주교육대	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진주교육대	다문화(탈북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	
진주교육대	농어촌학생	초등교육과	학생부	
진주교육대	기회균형	초등교육과	학생부	
진주교육대	장애인등대상자	초등교육과	학생부	
청운대	청운리더스	전 모집단위	학생부	
청주교육대	배움나눔인재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청주교육대	충북인재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청주교육대	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청주교육대	다문화가족자녀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청주교육대	농어촌학생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청주교육대	장애인학생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청주교육대	기회균형선발제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춘천교육대	교직적인성인재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춘천교육대	강원교육인재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춘천교육대	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춘천교육대	다문화가정의자녀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춘천교육대	농어촌학생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춘천교육대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춘천교육대	특수교육대상자	초등교육학과	학생부	
충남대	PRISM인재(200)	전 모집단위	학생부	
충남대	PRISM인재(300)	전 모집단위	학생부	
충남대	소프트웨어인재	컴퓨터융합학부	학생부/기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
충남대	영농창업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기타	영농창업계획서
충남대	국가안보융합인재	국토안보학전공	학생부	
충남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충남대	특성화고출신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충남대	저소득층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충남대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충남대	특성화고졸재직자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	학생부	

충북대	학생부종합 I	전 모집단위	학생부	시행계획에 없음
충북대	학생부종합 II	전 모집단위	학생부	시행계획에 없음
충북대	sw우수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시행계획에 없음
충북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시행계획에 없음
한경대	잠재력우수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경대	국가보훈대상자등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경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교원대	학생부종합우수자일반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교원대	국가보훈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교원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교원대	기초수급및차상위계층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교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교통대	나비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교통대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기술교육대	창의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기술교육대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기술교육대	사회통합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기술교육대	특성화고졸업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기술교육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기술교육대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외대	면접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외대	서류형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외대	SW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국외대	고른기회 I	전 모집단위	학생부	
한남대	지역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협성대	협성창의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3. 기타

대학	전형	모집단위	서류내용	비고
감리교신학대	자기추천자	신학부	기타	자기보고서 학생부 미제출
감리교신학대	대안학교출신자	신학부	기타	자기보고서 학생부 미제출
군산대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전 모집단위	기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학생부 미제출
제주대	소프트웨어인재	전 모집단위	학생부	포트폴리오 미제출

[2022학년도 예비수험생 특집] 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특징(1부)

01 | 실기/실적 위주 전형

대입정보 119 수시편 방송 1 공유

• 수학/과학, 어학, 문학, 컴퓨터/IT/SW, 미용/의상, 기능, 기타

조만기 선생님

구분	대학교(인원)
수학/과학	이화여대(50)
어학	국민대(44), 서경대(6), 이화여대(50), 서울신학대(8) / 상지대(18), 한림대(28) / 한남대(28) / 세명대(30) / 동국대(경주)(13) / 경성대(18), 부산외대(10), 한국국제대(3)

2022 대입정보119
활용안내 #5
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특징

-1부-

다음에서 보기: YouTube

[2022학년도 예비수험생 특집] 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특징(2부)

01 | 실기/실적 위주 전형

대입정보 119 수시편 방송 1 공유

• 수학/과학, 어학, 문학, 컴퓨터/IT/SW, 미용/의상, 기능, 기타

조만기 선생님

구분	대학교(인원)
수학/과학	이화여대(50)
어학	국민대(44), 서경대(6), 이화여대(50), 서울신학대(8) / 상지대(18), 한림대(28) / 한남대(28) / 세명대(30) / 동국대(경주)(13) / 경성대(18), 부산외대(10), 한국국제대(3)

2022 대입정보119
활용안내 #7
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특징

-2부-

다음에서 보기: YouTube



"심리학"

심리학

심리학 분야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인간의 마음에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경험과학의 방법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인간학들과 구분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기초심리학, 정서심리학, 인지심리학, 임상 및 상담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등이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김미성 

심리학과 선택 이유

"심리학은 세상에서 제일 흥미로운 마술입니다."

중학교 때 강당에 모인 학생들에게 심리학의 세계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소개하던 심리연구원의 강연에서 저의 심리학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호기심은 제가 고등학교 진학 후 자율 과목으로 심리학 수업을 선택하게끔 이끌었습니다. 정신적 치료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과거와 달리, 심리 상담에 인식이 좋아져 상담 치료가 활성화되고, 심리학을 공부하면 마케팅, 서비스직, 광고 기획 등과 같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심리학에 대해 잘 모르던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후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던 심리학이 평소 관심 있던 사회 문제들과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욱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하면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우연히 당시 논란이 일던 경찰 수사방식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언론 매체에서는 범죄 사건의 잔혹성과 피의자에 대한 비난, 처벌만을 다루고 있을 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다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어느샌가 제 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이에 필요한 자격을 겸비하고 전문과 소양을 넓히기 위하여 심리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과 준비 방법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줄곧 심리학과를 꿈꿔왔던 저는 단순히 성적만이 아닌 생활기록부, 동아리, 교내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고루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3년 내내 위 전형을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수업이 있을 때면 발표 5분 전까지 대본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덜덜 떨며 내용을 되새기는 지금의 저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는 목표 아래 교내에서 주최하는 대부분의 대회나 활동에 참여하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활동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활동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관심사와 맞지 않아,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등과 같은 이유를 대는 것은 더 넓고 다양한 견해를 가질 기회를 저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의 학과 면접에서도, 준비해간 예상 질문이 아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내 괴롭힘 사례를 주제로 참가하였던 '교내논문 읽기 대회'에 관한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을 중점으로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지만 이내 저의 의견과 더불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구안해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혹은 단순한 활동일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려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되는 계기로써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을 녹여내려 한다면 좋은 경험이자 소재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내왔던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눌 때 각자의 수험생활 일화는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3년 내내 정시를 노래 불렀던 친구는 수시 교과 전형으로 학교에 가기도 하고, 부모님의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음악을 그만두고 방향하던 친구는 고3 막바지에 새로운 꿈이 생기는 등 누구 한 명 평범치 않은 수험생활을 보냈으며 저 또한 반전 가득한 수험생활을 보내왔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안전함이란 없다."라며 담임선생님께서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나는 다들 것이라고 자만하며 고등학교 내내 한 전형에 올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불겠지.'라고 나태해졌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화면 속 빨간색의 불합격 글자만이 저를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제 입학 방법은 성적이 조금 부족하여 경험해보는 것에 의의를 두었던 교과 면접전형 추가합격이었습니다.

추가합격 소식을 듣기 전 정시로 대학을 가려 마음먹었을 때, 저는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심리'는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과를 알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일 뿐입니다.

현재 수험생분들 또한 남들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불안하고 외롭게 수험생활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준비했던 전형, 학과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틀렸다고 낙담하였다면 미래의 심리학과 학생인 여러분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모습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과정이었지만 자신을 믿고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심리학과 재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밝혀봐.”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장난스러운 질문이 민망할 정도로 인간의 복잡한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 입증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을 문과 성향이 뚜렷한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고 마주하게 된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등과 같은 전공 수업들은 본래 내가 알고 있었던 학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과학적인 성향을 띄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현재 3학년 학부 과정을 밟고 있는 저는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등이 꼭 필요한 이론이자 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의 저처럼 학문의 한쪽 측면만을 보고 편향적으로 판단하여 괴리감을 느끼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인문학, 과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리학 서적을 고루 접해보고 생각해보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 어문, 회계 등과 같은 학과는 대다수의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만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대구·경북 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심리학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를 선택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하고 체계화된 학과동아리 때문이었습니다.

사이코드라마, 예술치료, 중독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학과동아리들은 학교에 재학하면서 상상 이상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시절 단순 호기심에 이끌려 시작하게 된 중독예방동아리는 3년째 이어나가고 있을 정도로 학과 생활과 더불어 향후 진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부족한 전공지식을 배우고 교류하며 활용해보는 것을 넘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봉사와 캠페인을 주관하는 등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관련 활동들을 모색하고 구안해내는 모습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심리 인의 밤’이라는 학과행사를 주최합니다. 이를 통해 심리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내 재학생들이 1년여간 진행된 학과동아리 활동을 교류하며 즐기곤 합니다.

저처럼 수험생 여러분들도 학과에 입학하여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동아리, 학과 행사 등 여러 활동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분야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에 기반한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계획·분석·설계·구축에 필요한 체계적인 방법론, 빠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정보 전송 기술 등의 구현을 위해 기초 기반 학문 및 최신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정보수집 및 관리기술, 정보분석, 정보교환,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광통신, 광전송, 전파통신, 위성통신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전공 김채린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연히 대학생 언니가 사용하는 껌깍 악어라는 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앱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용돈이 필요한 대학생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두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넘어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앱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후로 누군가를 도우면서 좋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평소 저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고 실제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져 컴퓨터 분야 전공을 선택하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준비 방법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면서 내신과 자소서, 수능 컷까지 세 개를 모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추구하는 자소서 방향과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이 맞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학교 내신공부도 하고 모의고사 컷을 맞추기 위한 공부 시간도 부족한데 자소서 수정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쓴 자소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오가자 선생님에 대한 서러움에 교무실에서 펄펄 울기도 했습니다. 고3 스트레스에 선생님의 잔소리까지 더해 제 자존심은 무너지고 멘탈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또 일반고인데 내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수능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신, 자소서, 수능 최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게 될까 봐 불안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왜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에 대한 동기를 뚜렷이 세웠습니다. 나는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시에 이런 것도 써보는 게 어떨지',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데 더 높게 써야 하지는 않은지', '수능은 한방이니까 수시에 안전한 학교를 넣어야 하지는 않은지' 등 저를 위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갈팡질팡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에 제대로 대입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주변에서 나오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멘탈을 잡다 보니 자소서 수정 시간, 내신공부 시간, 수능 준비 시간을 제대로 배분해서 그 시간에 집중해 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내가 꾸준히 한 것! / 나만의 꿀팁

① 공부 습관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 방법은 공부한다고 밤을 새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생활 동안 공부를 위해 밤을 새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밤을 새우게 되면 공부효율이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적절한 수면으로 뇌를 쉬게 해주고 적절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에 지칠 때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찾곤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학교 책상여다가 목표한 대학과 학과를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힘들어질 때마다 '꼭 합격해야지'라고 긍정적인 사고회로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 노트북을 들고 캠퍼스를 누리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공부 일지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오늘 공부할 양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계획한 일을 만족스럽게 수행했다면 '○'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면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 그 주의 표시를 합산하여 평균을 냈습니다. 그 평균이 낮으면 반성하고 왜 수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일기를 적었습니다. 만약 만족스럽게 수행했다면 저에 대한 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상으로 '핸드폰 하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즐거움도 생기게 되고 자신의 공부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② 규칙적인 생활 패턴

저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등교하고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오늘 한 수업에 대해 정리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엔 모의고사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후에는 오늘의 일과를 꼼꼼히 정리하고 무조건 저녁 11시부터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습관 덕분에 매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학교에 가는 길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습관 덕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③ 가벼운 운동

고등학생이 되자 아침부터 저녁 야자까지 총 14시간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집중력도 흐트러져 성적이 주춤한 적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5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점심 먹고 난 후에는 소화도 시킬 겸 운동장을 돌면서 운동했습니다. 또, 등하굣길은 꼭 걸어 다녔습니다. 체력이 붙고 나니 공부할 때 지치지 않고 성적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특강점) 및 대학(전공) 생활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IT 공학 전공을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 전원에게 그해의 최신 삼성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까지 노트북 걱정 없이 코딩할 수 있습니다. 또, 앱 개발환경을 위해 갤럭시 탭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VR기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모바일 기기 제공 등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기적 학생 진로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진로상담을 해주시기 위해 연구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반갑게 학생들을 맞아주십니다.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컴퓨터와 수학 과목이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수학적 사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수학 계산을 잘하기보다는 문제 푸는 방법 찾기, 경우의 수 같은 단원이 프로그래밍에 많이 도움됩니다. 구체적으로 팩토리얼, 수열, nCm 부분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밍에 많이 적용되는 기초 수학으로 등장합니다. 컴퓨터 과목에서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웹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크래치(scratch)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스크래치를 써본 적이 없지만,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공부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사용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추천도서는 알고리즘 입문서, 프로그래밍 입문서 등 컴퓨터적인 사고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java', 'javascript', 'c++', 'c#' 등 매우 많습니다. 이 중 다가가기 쉬우면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c'와 '파이썬'입니다. 따라서 대학 입학 전 미리 'c'나 '파이썬'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서를 읽고 오면 학교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실습 예제가 있는 책을 사서 스스로 컴퓨터 실습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더 다양한 지식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트렌드가 쉽게 바뀌고 시간이 좀 지난 프로그램들은 금방 버려지기 때문에 책보다는 인터넷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IT 공학부의 IT는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 기술'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팅 기술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IT 공학부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 기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공부하게 되는데, 3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몸에 감쌀 수 있는 IT 장치인 웨어러블 장치 등 각종 스마트 기기에 대해 공부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워치 같은 기기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만큼 정보 즉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을 공부하는 데이터 공학 트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감성을 인지, 해석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감성 컴퓨팅 트랙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쉽게 생각하면 AI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IT 공학 전공에서는 IT 기술을 여러 분야와 접목하여 공부할 수 있게끔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위주의 실습수업으로, 노트북 지참이 필수인 수업이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고 실제로 내가 개발할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는지, 과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지 따져보고 상업성이 있는지까지 판단하여 개발에 착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프로젝트 기획, 개발, 그리고 그 후의 유지보수까지 체험해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기본 프로그래밍 입문 언어인 파이썬, C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컴퓨터에 필요한 수학을 공부하는 과목과 IT 기술에 대한 이론 수업 위주로 공부합니다. 2학년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응용과목에 들어서게 됩니다. 데이터 구조, 컴퓨터 구조와 같은 언어를 학습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3, 4학년에 들어서서는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으로 실무와 연관된 공부를 합니다. 특히 캡스톤 수업과 졸업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에 착수해보면서 IT 공학인으로서 실력을 쌓게 됩니다. 따라서 IT 공학과를 졸업 후에는 IT 기술 개발 분야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 서비스, 콘텐츠 개발, IT 융합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학과가 IT 공학인 만큼 개발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요, 프로그래밍 실력을 쌓으려면 학교 수업을 통해 기초를 쌓고 프로젝트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외부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더 큰 팀과 큰 프로젝트에 착수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xopt'라는 외부 창업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활동해보았습니다. 이 동아리는 개발 파트와 기획, 디자인 파트가 나뉘어 실제 사용 가능할 정도의 서비스를 구축해보는 앱잼이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아리원이 백 명이 넘는 아주 큰 동아리인 만큼 체계적인 프로젝트 경험을 해볼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느 외부 동아리에 가든 숙명여대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숙명여대 학생들은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매우 진취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IT 혹은 공과대학이라고 하면 수학을 잘해야 할 것 같지만 수학을 특출나게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능력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계산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해줄지, 수학적으로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 어떤 수학적 사고방식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논리적,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유사한 학과로는 컴퓨터과학 전공과 소프트웨어 융합 있습니다. 둘 다 배우는 것은 비슷하지만 좀 더 이론 중심적인 공부를 합니다. IT 공학과는 앞의 두 전공보다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습니다. 직접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경험을 하고 싶은 컴퓨터 과학 전공 학생이 컴퓨터과 학과에 개설된 똑같은 과목을 IT에서 수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대학 3학년 2학기까지의 과정을 마치면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이 많이 부여됩니다. 평소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격증 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데이터 관련 자격증 등 여러 자격증이 있어 평소 관심 있는 분야나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처리기사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필수로 따놓는 것을 추천하며, 그 밖의 자격증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 취득하는 추세입니다.

꼭 하고 싶은 말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학생 여러분! 프로그래밍은 부지런해야 하는 분야이고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 열린 자세로 공부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학문입니다. 오래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프로그래머의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모두 개발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국어 과목 학습법을 알아보자

이주민 교사(안산강서고등학교)

국어교과에 대한 고민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와 같이 과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형식이나 구분이야 어쨌든 간에 학생 입장에서 국어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우리말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막상 시험을 치르고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영역에 맞는 학습법이 아니거나 비효율적인 학습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신에서의 국어

내신은 기본적으로 시험 전 1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성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공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선행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배우기 전의 내용을 학습하고, 시험 범위가 발표되면 시험 대비라는 명목으로 시험 준비를 합니다. 이때 시험 대비는 무작정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거나 그 학교의 전년도 내신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내신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신에서 만나는 국어 과목은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로 구성됩니다. 학교나 교과에 따라 다르지만 수행평가가 적게는 30%에서부터 많게는 60% 이상 차지하기도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신경 써야하므로 아무리 적은 수행평가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수행평가의 흐름은 과제보다는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특이 좋아지게 되고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주제발표와 유사한 수행평가가 있다면 인터넷을 보고 정리해서 내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책을 읽고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독서와 활동이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독서 능력도 키우고 수능 독서 영역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필고사의 특징은 시험 범위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비해 적고 공부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원의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원에서 주는 문제만 풀다 보니 정작 그 단원에서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만다는 점입니다. 정규 교과는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단원의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원은 필요에 따라서는 수행평가로 평가할 수도 있고 지필평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고전소설 '춘향전'이 나왔고 이것이 시험범위입니다. 그렇다면 출제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학습 목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춘향전'의 학습목표가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와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면 교사는 작품 감상 영역과 작품 변용 영역, 가치 판단 영역 세 가지를 출제하게 됩니다. 수업 내용에 따라 문학사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단원 뒤에 있는 학습활동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학습활동은 아주 중요한 출제 지침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단원에서 설정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이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올바른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의 국어

수능은 내신과 달리 1달 혹은 특정 기간에만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이지만 꾸준히 독서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능 준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수능에서 국어 영역을 분석해 보면 문학과 독서가 공통 영역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 영역입니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문항을 출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의 풀이법에 맞추어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학은 문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문항을 출제할 때 학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합니다.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체로 문학 작품 하나에 서술상의 특징, 작품 내용 파악, 구절이나 소재에 대한 이해,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하기, 두 작품 비교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작품 감상입니다. 서술상의 특징이나 두 작품 비교하기 등은 하나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작은 방법이고 구절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을 스스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문제를 통해 문제만 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품의 의미나 내용을 자습서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읽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문학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독서는 독서의 원리와 방법을 바탕으로 인문학·사회학·자연과학·기술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제재의 글이 출제되고 이를 통해 사실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합니다. 글의 유형으로는 논설문이나 설명문, 보고서 등 다양한 유형이 출제됩니다. 문학과 마찬가지로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 글의 전개 방식, 핵심 개념 이해, 특정 상황에 대한 추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등의 문항이 출제됩니다. 어떤 문항이든 결국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문제집을 통해 유형을 공부할 때 답을 골라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글 속에 있는 주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정리해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단편적이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복합적인 사고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택으로 가장 많이 고르는 과목이 화법과 작문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화법과 작문은 선택과목 이전에 10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때 대부분 정답률이 70%를 넘길 정도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독서나 문학보다 일상의 표현이 많이 제시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쉽게 느끼는 영역입니다. 다만 언어와 매체보다 지문의 길이가 길고 내용은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이 시간 안배에 신경 써야 합니다. 화법과 작문을 공부할 때에는 일반적인 담화상황인 연설, 토론, 회의, 발표 등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표현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에서도 정보전달, 설득, 자기 성찰 등 다양한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연습보다는 학교 수행평가나 발표 시간에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언어와 매체는 문법과 매체에 대한 이해로 구성된 교과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문법 영역입니다. 이는 국어의 다른 영역과 달리 공부해야 하는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법에서 출제되는 수준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발음하고 음성 언어 생활, 문자 언어 생활을 다른 사람과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문법을 알고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 문법을 암기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언어 표현 중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021학년도 11번 문제는 단어의 구성을 묻고 있습니다.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구성 요소들의 관계가 서술어와 목적어인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단어들은 새해맞이,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관형사가 무엇인지와 구성요소의 관계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문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자신의 언어 습관과 연결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법에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맺음말

너무나 빠른 이야기이지만 모든 공부에 왕도가 없듯 국어 공부에도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내신도 수능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수행평가를 해서 제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신 시험 문제는 결국 교과서이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습활동은 모든 교사가 출제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점이니 꼭 학습활동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험생활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서울대학교 인문학부20학번(지역균형선발전형)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 지역균형선발전형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합격했지만, 1학년 때부터 '나는 반드시 이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겠다!'라고 생각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수시 준비과정은 그냥 일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수시는 지역균형선발전형뿐만 아니라 여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읽어도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①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및 학과 정하기

학생부종합전형은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맞추어 생기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를 빨리 정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과를 늘 영두에 두고 학생부를 준비했기에, 3년 내내 학생부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과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다른 학생분들도 저처럼 몇 개의 학과를 놓고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가'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과에서 배우는 내용, 각 학과의 입시결과 등의 정보를 얻고, 최종적으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진로 고민을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진로를 정한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당장 구체적인 진로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하나의 큰 분야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인문대학 계열 / 공과대학 계열 / 상경대학 계열에 입학할 거야?'처럼 말이에요.

② 내신 관리 및 교내 활동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과 교내활동을 꾸준히,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교내활동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내활동

교내활동은 크게 수상, 동아리, 교과별 세부특기사항, 독서, 봉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수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수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대회든지 일단 열심히 참여해보라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대회는 무조건 참여하세요. 저는 글쓰기에 관련된 대회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참가했던 것 같아요. 백일장, 공모전, 심지어는 과학글쓰기 대회에도 참여했던 것 같네요. 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을 타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대회에 최대한 성실히 참가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남기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남기라는 것은 대회를 통해 학생부, 면접, 자소서, 심지어는 다른 대회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야기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거리를 만들려면 일단은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회에 열심히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은 우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3학년 때 문예부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자소서와 학생부, 그리고 면접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저는 문예부에서 문집을 만들어 학교 축제에서 판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면접 때 학교를 다니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활용했는데, 특이한 경험이라며 교수님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학생부를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별 세부특기사항

교과별 세부특기사항은 어떤 과목이든 빠짐없이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국어·국문학과를 희망하는데 수학 과목 세트를 채길 필요는 없겠지?와 같은 생각은 매우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 채기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과목의 세력이든지 자신의 희망 학과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학년 때 수학과목 세력으로 미적분과 관련된 보고서를 써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미적분을 활용한 한국 방언의 성조체계 연구법을 주제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수학처럼 국어·국문학과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과목도 최대한 국어와 연관 지어 세력을 채웠습니다.



독서

독서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책과 교양서적이 비율이 7대3, 혹은 8대2 정도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과 관련된 질문은 면접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평소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책을 읽어왔다면, 아무래도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겠죠? 가끔씩 수준 높은 독서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대학교 전공 서적 수준의 책을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 누구도 고등학생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전공과 관련된 체험을 미리 해본다는 생각에서 한두 권 정도 읽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두 권 정도는 전공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어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공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라는 대답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봉사

봉사는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한 가지 봉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3년 때까지 같은 요양원에 서 격주로 2시간씩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 때는 약 48시간, 3학년 때는 약 24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시간은 많이 채웠지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2·3학년 때는 자소서와 생기부에 쓸 이야깃거리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자소서 3번에 2년간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한글이 익히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쉽고, 간편한 한글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③ 자소서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자소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소설'이라는 별칭, 혹은 별칭과는 달리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인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쓰는 방법은 무척 다양할 것 같아요. 1, 2, 3번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소서를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각각 인상 깊은 내용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 2, 3번의 내용을 연결하려고 해봤지만, 너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억지로 내용을 연결하려다 보니 어느 정도의 거짓말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후자의 방법으로 자소서를 썼습니다.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하고 화려한 형식이 아니라 진실성입니다. 거짓말로 쓴 자소서는 결국 티가 납니다. 모범 자소서 사례의 형식을 따라 하느라 거짓말을 쓸 바에는 차라리 그 형식을 포기하고 투박하되, 진실한 글을 쓰세요.

④ 면접

'면접은 자신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학생부를 보면서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공책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 면접이나 실제 면접에 들어가면 면접의 본질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준비한 질문들은 절대 면접에 나오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극악의 확률을 뚫고 혹시 준비한 질문들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상 질문과 대답을 준비하며 면접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 면접을 처음 보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해 동문서답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비속어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그 형식에 대한 감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대답을 작성해보는 것은 이 '감'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감을 잡았다면, 이제는 자신감과 순발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전부 면접을 봤는데, 하나같이 횡설수설하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실제 면접에 들어가면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말하고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약간의 헛소리가 섞여 있어도 좋으니 자신이 생각한 것을 조금이라도 당당하게 전달하고 나오세요. 그 자신감은 실전과 같은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면접 한 달 전부터는 모의 면접을 해 보세요!

수시 원서는 일반적으로 6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여러 번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면접을 5번 봤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난 면접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던 면접을 심하게 망쳤습니다. 면접 시간이 총 8분이었는데, 거의 3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면접관과 눈싸움을 하다 나왔어요. 이때 멘탈이 심하게 흔들린 나머지 면접에 대해 잠깐 자신감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면접 한 번을 망친 것뿐입니다. 다른 면접에서는 얼마든지 잘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망친 면접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2 내신 성적 관리 팁

① 내신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입니다.

매일 배운 내용을 머루지 말고 그날 꼭 복습하세요. 복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특히 탐구 과목에서의 반복적인 복습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을 복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오늘 '환경윤리'를 배웠다면 그날 자습시간에 '환경윤리'를 복습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엔 '생명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 자습시간에 '환경윤리'와 '생명윤리'를 복습합니다. 또 다음 날, '공동체 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 자습시간에 '환경윤리', '생명윤리', '공동체 윤리'를 복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 그날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날, 전전날에 배운 내용까지 총 사흘치의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복습을 하면 당장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암기한 내용이 훨씬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에는 오히려 암기할 양이 줄어들어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유시간을 응용문제를 풀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② 적어도 시험 기간 3주 전에는 3주치의 공부 계획을 미리 세워주세요.

너무 꼼꼼하게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날에는 이 과목을 공부하겠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신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과목의 성적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한 과목은 공부를 끝마치지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되기 십상입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③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어떤 공부를 할지 미리미리 생각해둡시다.

간혹 "시험 기간이 아니어서 할 공부가 없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입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시험 기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홀해지는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탐구 과목 복습을 하고, 수학 문제를 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 해서 수학 문제 풀이에 늘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공부들로 바쁜 시험 기간이 되면 한 번 공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학 문제 풀이에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몇 시간씩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내신 시험 기간에 자신이 소홀해지게 되는 과목을 분석해보고, 그 과목을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대회에 참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리 올림피아드, 교내 정책 공모전, 심지어는 교내 과학 올림피아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밖에 글쓰기나 국어, 문학과 관련된 대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통일 백일장 대회, 문학사 연구 대회 등등..... 입상은 교과 우수상을 제외하면 대략 30~35개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아리 및 봉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독서 토론 동아리, 2학년 때 문예창작 동아리, 그리고 3학년 때 문학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1학년 때 문학 연구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문학작품을 읽고 분석하여, 자기만의 소논문을 써보는 동아리였습니다. 학년 말에는 부원들의 동아리를 모아 논문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자소서 1번에 '1학년 때 자율 동아리에서 문학작품과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심화보고서로 작성하는 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문학 작품이 현실과 가지는 연관성 등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같은 내용으로 활용했습니다. 2·3학년 때는 문예부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때 2년에 걸쳐 문집을 제작한 경험은 자소서 2번에 활용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 동안 대략 교외 봉사 100시간, 교내 봉사 60~70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2·3학년 2년 동안 꾸준히 참여한 요양원 봉사활동이 제게는 가장 인상 깊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어떤 과목의 세특이든 되도록 제 진로와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국지리는 '문학작품 속에 드러난 지역방언', 영어는 '국어와 영어의 문법적 차이' 이런 식으로요. 또 저는 3년 동안 발전하는 모습을 세특에 넣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한국 문학사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주제로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했다면, 2학년 때는 '한국 문학사에서 드러나는 소설 창작 기법의 변화', 3학년 때는 '한국 문학사 속 창작 기법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의 의미를 발표하는 식으로, 주제를 점차 심화시키면서 3년 동안 국어 세특을 채워나갔었습니다.



자소서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앞서 조금씩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몇 가지 언급하자면, 2번 문항의 하나는 지친 수험생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시나 글귀를 학교 복도에 붙이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위로가 되는 문학의 순기능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썼고, 3번 문항의 다른 하나는 모듬 활동의 조장으로 일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자소서에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저는 희망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조사해서 그것을 자소서에 조금씩 녹였습니다. 특히 '어디가에' '전형정보' 검색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가 추구하는 가치 중 '진리가 있다면, 나는 ~활동을 통해 ~하는 진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EBS 연계 교재를 꾸준히 복습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니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어

일단 화작문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비문학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비문학 문제를 꾸준히 풀다 보면 자연스레 화작문도 풀려요. 비문학은 이틀에 서너 문제 정도는 꼭 푸는 것이 좋아요. 예술·인문 분야보다는 과학·경제 지문을 중점으로!! 틀린 문제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왜 틀렸는지 정도만 알아보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세요. 문법은 하루에 조금씩 하기보다는 한 달 정도를 잡아서 모든 개념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이후에 이 주일에 한 번씩 다시 복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문법은 우선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눈에 익은 지문을 많이 만들어 두세요.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며 시간을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국어 문제를 틀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학생의 독해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독해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느 문제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할지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

가장 먼저 개념을 잡으라는 것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일 겁니다. 그만큼이나 수학에서 개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학의 많은 개념을 단기간에 완벽히 소화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수학을 못 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3학년쯤 돼서야 '나는 어느 정도 수학을 잘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하게 될 겁니다. 수학 개념을 익히는 것은 무작정 개념 집을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직접 문제에 부딪히며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대략적인 개념을 암기했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 보세요. 아마 무슨 짓을 해도 안 풀릴 겁니다. 이것은 숙지한 개념에 무언가 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답지를 보며 개념의 빈 곳을 채워가세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막힌다고 해서 바로 답지를 보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이걸 아직 개념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답지를 보지 않고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나름의 답을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답지를 보지 마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 싶으면 21, 30번을 제외한 4점짜리 문항들을 푸세요. 21번, 30번 기출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는 마세요.

영어

기초가 쌓이지 않았다면, 우선 단어부터 공부하세요. '수능 단어 2000' 같은 단어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은 심화 단어장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익혔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몰랐던 단어들을 수첩에 정리해서 그것을 나만의 단어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문법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수능에 나오는 문법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독해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조금씩 풀며 감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EBS 연계교재를 보고,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 과목의 연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문을 보자마자 그 지문의 내용이 생각날 정도로 연계교재를 보고 또 보세요!

탐구

저는 '생활과 윤리'와 '세계지리'를 선택했습니다. 사탐 과목의 공부법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우선 EBS 연계 교재의 개념들을 사소한 것까지 전부 외우세요. 탐구 과목의 킬러문항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출제됩니다. 개념을 전부 외웠다면 그다음은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 개념을 전부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점이 사탐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따로 오답노트를 만들어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의 답안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따로 외우세요. 사탐은 응용 10% 암기 90%로 이루어진 과목입니다. 일단은 개념을 전부 암기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10%의 응용을 잡아야 합니다. 사탐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니깐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익히세요! 적어도 최근 5개년 기출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잠은 꼭 잘 주무세요. 잠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내신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1교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수능과 모의고사는 아침부터 치릅니다. 저는 괜히 불안해서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밤을 새우지는 맙시다.

또 하나,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는 맙시다. 고등학교는 수험생활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을 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친구랑 놀 수도 있고, 의미 없는 대화를 하며 시간을 때울 수도 있어요. 오늘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험생활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의 멘탈 관리는 긴 수험생활에 있어 필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대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교협 대입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 21학번(학생부종합전형)

성공적인 고등학생 생활 보내기

안녕하세요. 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였던 방법과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및 학과 정하기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생기부에는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자신만의 스토리를 적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종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진로 희망이 바뀌어서 곤란을 겪었고, 저와 같은 친구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쫓 같은 진로를 꿈꾸며 준비한 친구들에 비해 생기부에서 나타나는 흥미 정도나 퀄리티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진로에 대한 방향으로 공부 시간을 허비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미리 정해놓기를 추천합니다. 이 글을 읽는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하루빨리 알아보고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정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수험생 때 스트레스받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노하우



수상

1학년 때부터 교내 대회는 다 참석해서 경험도 쌓고,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특히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대회는 전문 지식도 배울 겸 무조건 참여해 최대한 수상하도록 노력하여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뽐내시길 바랍니다.



동아리 및 봉사

동아리는 제 진로가 보건 계열에서 제약 관련 분야로 바뀌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생명동아리, 2년 동안은 화학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생명동아리에서는 동아리 부원들 모두 의사나 간호사를 꿈꿨기 때문에 함께 보건 UCC를 만들거나 캠페인 활동을 통해 다른 친구들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화학동아리에서는 제약에 관련된 다양한 화학실험을 하며 이 분야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기장을 맡아 하고 싶은 실험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과학도로서의 자질과 리더십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되었고, 각각 자소서 2번과 3번에 기재하였습니다. 중간에 진로를 바꾸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아닐지 고민했지만, 매년 진로를 위해 최대한 열심히 활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면 괜찮다는 진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진로 변경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학년 때 교외 봉사는 못 했지만, 3년간 대략 190시간 정도 했습니다. 교내 봉사는 2년 동안 또래 상담 도우미를 했고, 교외 봉사는 1학년 때부터 요양 병원에서 청소와 요양 보호사분들을 도왔습니다. 봉사는 꾸준함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생기부에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세특

세특은 '성실함, 능력이 뛰어남'과 같은 상투적인 문구나 본인이 했던 활동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목을 위해서 본인이 했던 활동(수행평가, 보고서, 발표 등) 중 한두 가지 정도만 선택해 자세히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 생기부에 있는 세특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영어 세특에는 영어 기사를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여 시사에 관심이 많다는 점과 전공에 맞는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과학 과제 연구 세특에는 "관심 있는 약학 분야의 연구 논문인 ... 를 분석함."이라고 기재하고, 추가로 분석한 내용과 발생한 궁금증을 대조실험을 통해 해소한 내용을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자신만의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소서

학습 경험을 쓰는 1번 문항에서 저는 과학에 흥미를 얻게 된 계기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 "생명과학 2과목에서 광합성을 배우며 캘빈회로가 효율성이 낮음을 알게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며 인공광합성에 관심을 가졌음... 또한,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어 관련 내용을 대학에서 탐구하고자 함..."과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습니다.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적는 문항인 2번에는 크게 '비타민 대조 실험'과 '화학 동아리 활동'으로 나누어 내용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교내활동 주제 개수는 2개를 추천합니다. 3개를 정하게 되면 1,500자 안에 적고 싶은 내용을 모두 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대조 실험' 파트에서는 과학적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스스로 실험 주제를 만들어 대조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화학 동아리 활동' 파트에서는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생겼는지 조원과 논의해보며 협동력의 중요성과 화학물질에 대한 때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려, 나눔, 협동,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보여주는 3번 문항의 경우엔 화학동아리에서 기장을 맡은 경험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부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게 된 계기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만약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적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신 성적 관리 노하우

저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길 힘들어해서 과목마다 투자해야 할 시간을 효율적으로 계산해 짧은 시간 내에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 공부 방법을 한번 참고해보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①저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며 필기하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내신 관리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단연코 '수업 시간에 집중하며 필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며 모든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설명해주실 때 든 예시나 농담을 같이 적어야 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혼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을 떠올려보며 수업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선생님께서 던지신 질문을 생각하고 직접 입으로 말을 뱉을 기회가 많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공부에서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일찍 자고 멀정한 정신으로 수업 시간 동안 집중하며 필기해보길 추천합니다.

$$y(x) = A_1 \cos(\omega_1 x) + A_2 \sin(\omega_1 x) + A_3 \cos(\omega_2 x) + A_4 \sin(\omega_2 x) + \dots$$

$$= \sum_{n=1}^{\infty} (A_n \cos(n\omega x) + B_n \sin(n\omega x)) = \sum_{n=1}^{\infty} C_n \cos(n\omega x - \phi_n)$$



②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많이 애용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야자보다 학원에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야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야자를 한 학기 동안 했었는데 공부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자는 휴대폰이나 게임기 같은 물건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자습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발동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야자 시간에 모두 끝내고 가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신기간(시험 날을 기준으로 3주 전 정도)이 아닐 때는 당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 한 번씩 읽고 남은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며 수능도 준비했습니다. 내신기간에는 당일 배운 내용 + 예전에 배운 내용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국어는 문학일 경우 첫 줄만 읽으면 이 작품의 줄거리와 주제 및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는지 다 생각날 정도로 공부해야 하며 문법은 개념 정도는 다 꿰고 있어야 합니다. 과탐의 경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암기해 목차별로 백지에 모두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수능 성적 관리 노하우 (부제: 나만의 수능 공부법)

국어

문학은 평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내용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EBS 수특과 수완에 나오는 작품들을 인강과 함께 분석해 주세요. 분석을 완벽히 한 뒤 인강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수능 전까지 작품의 내용과 흐름은 외우다시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비문학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구매해 매일 3지문씩 문제를 풀었습니다. 비문학은 며칠만 안 봐도 지문을 구조적으로 보는 방법과 키워드를 캐치하는 감을 잃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문제를 푸는 것과 다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은 기초를 완벽하게 다지고 그에 해당하는 파트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보기로 개념을 제시해주긴 하지만 긴 글을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머릿속에 넣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3학년이 되면 문법 개념을 끝까지 훑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법 개념은 3학년 되기 전 겨울방학에 모두 익히기를 추천합니다. 화작은 매일 조금씩 풀면서 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3학년이 됐다면 매년 6월, 9월의 기출을 풀고 꼼꼼하게 분석해보세요. 특히 해당 연도의 6월 9월은 각 파트별로 출제 방식이 어떠한지 분석하며 그런 문제 유형에 대비하세요. 기출을 풀 때에는 수능 시간에 맞춰 아침에 국어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국어 공부하는 버릇을 들여놓으세요.

수학

수학은 고1 때부터 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신기간에 매일매일 문제를 풀고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만 기억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하나 장만해보세요. 이때 팀은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개념은 무엇인지를 구석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고 흥미해진 개념들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

저는 수특, 영독, 수완의 연계율이 70%여서 고1~2학년까지 기초를 쌓고 고3 1년 동안은 수특, 영독, 수완만 반복해주었습니다(물론 수능연습을 하기 위해 1달에 2번 정도는 기출을 풀었습니다.). 1년 동안 대략 전체적으로는 3화독 정도 하였고 중요한 주제나 지문은 2화독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달달 외우면 수능 날 연계 문제는 5초컷 가능해요. 3등급 초반부터는 방학때 문법 기초와 독해연습을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외우기입니다. 단어가 진짜 수능영어의 8할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 책을 하나 정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탐구

저는 '생명과학1'과 '화학1' 시험을 봤습니다. 생1과 화1은 제발 내신 때만 열심히 하고 던져두지 마시고, 3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리해둔 노트를 읽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내신 때만 열심히 하고 다른 과목들만 공부하니까 다 까먹어버려서 다시 공부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일단 개념은 최소 고3 여름방학 전까지는 마스터해야 합니다(가장 베스트는 고3 개학 전까지입니다). 이후에 여름방학까지는 수특과 수완을 병행하면서 기출을 반복해주시고 6, 9월은 2화독씩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능까지는 기출을 다시 풀어보면서 개념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세요. 생명과 화학의 킬러 문항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법은 미리미리 익혀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킬러문항을 공부하기 시작하신다면 스트레스로 정말 미쳐버려요... 소홀히 하셨다면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활용법 (부제:내가 생각하는 어디가 활용법)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진로 정보부터 대학별성적분석까지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진로메뉴를 통하여 관심 있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합니다. 키워드로 '생명'이라고만 검색하면 생명과 관련 있는 직업을 쭉 알려줘서 저도 고등학교 당시에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학과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대학/학과/전형 메뉴에는 학과검색에서 대계열부터 소계열까지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어, 평소 관심 있는 분야를 클릭해봄으로써 해당 분야의 다양한 학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정할 때 이용해 보세요.



또한 대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입상담-온라인대입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성적과 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무료로 해주십니다. 상담을 신청해보면 대입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능을 본 후에는 대학별성적분석(정시)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입력된 수능성적, 학생부성적을 학교별 산출점수로 계산을 해주니 위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수험생 시절, 사소한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받고 자주 우울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재만큼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에 휩싸여 혼자 운 적도 있습니다. 이때의 저와 같이 혼자 공감 잃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혼자 속으로만 삭이지 말고 의지할 수 있는 상대에게 울면서 털어놓아 보세요. 말하다 보면 속이 꽉 막힌 느낌은 좀 해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끝까지 달려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살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 경험은 정말 가치 있을 겁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화이팅!